

YONHAPI연합르페르 REPÈRE

🖹 목차

🗈 과월호

정기구독신청

사진구입



ravel_ Japan

古城散策

고결함이 깃든 해오라기의 성(城)

『 글・사진/장성배 기자, 협찬/엔타비(www.ntabi.co.kr), 일본 히메지 시(http://himeji-kanko.jp)

백로(白鷺)는 우아하고 고결한 이미지로 다가온다. 눈차렴 희다 하여 설객(警客)이라 일컬어진다. 우리말로는 해오라기로 불리는데 희고 깨끗한 생김새처럼 이무 곳에나 둥지를 틀지 않는다. 히메지(姊路) 성의 이미지가 그렇다. 일본 효고(兵庫) 현 남쪽 헤메지 시에는 400여 년 전 해오라기 한 마리가 내려앉아 상서로운 자태로 깃들어 있다.



입춘이 지난 지 벌써 한참인데 히메지 성에는 눈이 내려앉아 있었다. 멀리서 보면 담장과 지붕 기와가 새하얀 눈으로 덮인 듯했다. 이제 곧 벚나무가 꽃망울을 터뜨릴 시기인데....... 봄눈의 정체는 회반죽이었다. 화재와 화공(火攻)으로부터 성을 보호하기 위해 수년마다 돌아가며 기와와 벽면 전체에 회반죽을 덧칠하는 중이었다.

아름드리 벚나무가 즐비한 드넓은 산노마루광장(三の丸廣場)을 가로질러 입장권 판매소에 이르니 낯익은 사진이 눈에 들어온다. 사진의 주인공은 불에 탄 숭례문이었다. 히메지 시의 시민단체인 '히메지 성 보존회'가 방화로 소실된 숭례문의 복원을 돕기 위해 벌이는 모금이었다. 오는 5월까지 히메지 성을 찾은 방문객을 상대로 모금 활동을 벌여 한국에 전달할 예정이란다. 히메지 성 보존회측은 "숭례문 방화가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성금 모금을 시작했다"고 밝혔지만, 히메지 성을 둘러보고 나면 숭례문 화재가 그들에겐 남의 일임을 알게 된다. 성 안팎의 청소와 안내 등 자원봉사활동을 벌이는 수백 명의 회원은 물론 성내 곳곳에 배치된 청원경찰이 성을 철저히 보듬어 지키고 있다.



히메지 성은 중추에 해당되는 텐슈카쿠(天守閣)를 비롯해 대부분의 건물이 게이쵸(慶長) 연간인 1596년에서 1615년 사이에 축조됐다.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의 사위인 이케다 데루마사(池田輝政)가 대규모 개축 공사를 벌여 현재의 모습으로 완공했다. 17세기는 일본 성곽 건축의 전성기로 당대의 모든 역량이 히메지 성에 응축된 셈이다.

히메지 성은 증축과 개축을 거치면서 얼굴에 하얗게 분을 바른 가부키(歌舞技) 배우처럼 성 전체에 회칠을 하게 된다. 이는 당시 급속도로 발달하던 화기(火器)로부터 목조건물인 성을 방어하기 위함이었다. 그로 인해 '백로의 성'이라는 별호가 붙었다.

만든 이들의 정성이 지극해서인지 '백로의 성'은 축조 당시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오사카 성을 비롯해 다른 지역의 성들이 대부분 전란과 화마를 당한 것과 달리 단 한 번도 훼손되지 않았 다. 심심찮게 일본 열도를 강타하는 지진 피해도 모두 피해갔다. 모진 세월을 견디고 살아남은 것 에 훈장처럼, 일본 국보로 지정된 것은 물론 호류지(法隆寺)와 함께 1993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 산으로 등재됐다.

히메지 성은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는 이유 이외에도 복도식 망루의 독특한 내부 구조, 해자와 성벽의 아름다운 조화 등으로 인해 현존하는 일본 성 중에서 문화적 가치와 조형미가 가장 뛰어나 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히메지 성의 본격적인 관람은 히시문(菱の門)부터이다. 성의 첫 관문으로 산노마루에서 니노마루 광장(二の丸廣場)에 이르는 길에 버티고 섰다. 문 양쪽 기둥 위 대들보의 마름모 모양 문양에서 그이름이 유래했는데 성내에서 가장 크고 웅장하다. 무엇보다 금빛 꽃문양으로 장식된 카토마도(華燈窓)가 상단에 길게 설치돼 눈길을 사로잡는다.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손녀로 히메지 성주인 혼다 가문에 시집 온 센히메(千嬉)의 화려한 자태가 느껴진다.

센히메는 에도막부의 2대 쇼군인 도쿠가와 히데타다(德川秀忠)의 장녀였다. 혼다 가문은 최고 권력자의 딸을 며느리로 맞아들이면서 텐슈카쿠 서쪽의 니시노마루(西の丸)를 신혼집으로 내어주었다. 1616년 당시 스무 살의 센히메는 이미 재혼이었다.

니시노마루와 텐슈카쿠의 내부 관람은 신발을 슬리퍼로 갈아 신고 걷게 돼 있다. 긴 복도가 이어지다가 갑자기 가파른 계단이 나타나고, 위로 향하던 길이 내리막길로 이어지기도 한다. 미로처럼 얽힌 구조는 히메지 성의 특징이기도 하다. 반란과 암살이 횡행하던 전국시대의 유산인 듯싶다. 텐슈카쿠로 향하는 통로에는 침입자를 공격하기 위한 시설이 곳곳에 갖춰져 있다. 아무리 뛰어난 닌자(忍者)라 해도 수많은 함정과 복잡한 통로를 거쳐 성주의 처소에 이르려면 여분의 목숨이 필요했을 것이다. 히시문에 들어서 니시노마루를 거쳐 성주의 거처인 텐슈카쿠까지 오르려면 1시간은 족히 걸린다. 히메지 성은 자객에겐 난공불락의 성이지만 여행객에겐 아껴가며 함락시키고 싶은 성이다.





코코엔(好古園) 맑고 푸른 수면에서 노닐다

일본의 정원은 규격화된 정갈함으로 정평이 났다. 모든 사물이 흐트러짐 없이 단정하게 제자리를 지킨다. 연못에서 노니는 수백 마리의 비단잉어들도 마치 정해진 물길로만 오가는 듯 보인다.

코코엔은 히메지 성 서쪽에 자리한다. 해자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잇닿아 있다. 히메지 성에서부터 도보로 5분이면 닿을 수 있어 관광객들은 성 관람을 마치면 자연스럽게 이곳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코코엔은 물길이 에워싼 형태로 지천회유식(池泉回遊式) 정원의 전형이다. 화단과 숲, 연못과 건물의 배치는 에도시대의 정원 양식을 그대로 살렸다. 17세기 초 히메지 성주인 혼다 타다마사(本多忠政) 시대에 조성됐다. 당시 히메지 성의 유력자가 아리따운 여인을 유곽에서 사들여 거처를 지어 주었는데, 그 건물인 니시오야시키(西御屋敷)에 딸린 정원이 코코엔의 원류가 되었다. 현재, 에도시대를 대표하는 정원으로 영화와 TV 드라마의 단골 촬영 장소가 되고 있다. 실제로 코코엔을 찾아간 날에도 에도시대 궁녀의 삶을 다루는 다큐멘터리가 촬영되고 있었다.

소주앙(雙樹庵)은 오야시키 정원, 츠키야마 치센 정원과 함께 코코엔의 명소로 꼽힌다. 일본 전통다도(茶道)의 종가로 알려진 우라센케이에모토(裏千家家元)의 설계로 지어진 다실로 말차(沫茶)를 선보인다. 기모노를 입은 종업원이 찻물을 끓이고 말차를 만들어 건네준다. 쫊코코엔 입장료는 300엔(중학생 이하 150엔)이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까지 문을 연다. 개원 시간은계절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12월 29일부터 이듬해 1월 1일까지 휴원한다. 079-289-4120

타이요 공원(太陽公園) 한자리에 모인 세계문화유산

타이요 공원에는 이집트 피라미드, 중국 시안의 병마용, 이스터 섬의 석상 등 돌로 지어진 인류의 대표적인 문화유산들이 집결해 있다. 그 규모를 축소했을 뿐 실제 모습과 흡사하게 재현해 놓았다. 한자리에서 세계문화유산을 둘러보는 즐거움을 안겨준다.

타이요 공원은 히메지 시 북쪽 외곽에 자리 잡고 있다.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과 재활센터가 나란히 위치한다. 사회복지시설과 관광 상품을 접목시킨 아이디어는 칭찬받기에 충분하다. 노인들만 생활하던 외딴 곳에 관광객들이 찾아들면서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고 한다. 입장료는 다시 사회복지기금으로 환원돼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타이요 공원에는 전 세계 각국의 석상, 석등, 석탑, 석조건물이 즐비하다. 진시황 무덤의 병마용부터 제주도 돌하르방까지 수천 점의 돌 유물이 세워져 있다. 파리 개선문과 베이징 톈안먼도 축소된 규모이지만 웅장함을 드러낸다. 입구에서 만리장성이 있는 계곡 정상까지 걷다보면 하루 동안 세계일주를 하는 느낌이다. 2009년 봄에는 공원 앞산에 독일 노이슈반슈타인 성을 모방한 백조성(白鳥城)이 완공될 예정이다. 히메지 시내에서 차량으로 약 30분 소요된다.

타이요 공원 입장료는 500엔(중학생 이하 300엔)이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문을 연다. 079-266-6600





쇼진 요리(精進料理) 일본 사찰음식 체험

쇼진 요리는 일본의 사찰음식을 말한다. 살생과 육식을 금하는 불교의 교리대로 육류와 생선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야채와 곡물만으로 조리한다. 특히 두부와 나물, 버섯과 해조류를 이용한 요리가 많다. 조리법은 무침과 튀김이 일반적이다. 한국 불가에서 사용하지 않는 계란도 볼 수 있다. 쇼진

(精進)은 불가에서 정신 수양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히메지 시에서 쇼진 요리를 맛보려면 쇼 샤잔(書寫山)의 쥬료인(壽量院)을 찾아가면 된다.

예약은 필수다. 079-266-3553



엔교지(圓敎寺) 최후의 사무라이를 찾아서

엔교지는 톰 크루즈가 주연을 맡은 영화 '라스트 사무라이'에 등장하는 사찰이다. 히메지 시 북쪽 쇼샤잔(書寫山)에 자리 잡고 있다. 수백 년 수령의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산책과 명상에 알맞다.

10세기에 창건된 엔교지는 일본 천태종(天台宗)의 3대 도장으로 꼽힌다. 본래 히메지 도심에서 북서쪽에 자리한 쇼샤잔 전체가 엔교지의 세력권으로 산허리부터 정상까지 법당과 부속 건물로 가득했다고 한다. 물론 지금은 그 규모가 상당 부분 축소된 상태다.

마니덴(摩尼殿)은 엔교지를 대표하는 건축물 중 하나다. 가파른 경사면에 무대 양식으로 지어졌다. 입구에서 가까워 관광객이 가장 먼저 찾게 된다. 1921년 화재로 소실된 것을 1930년 본래 자리에 재건했다.

마니덴에서 산을 거슬러 올라가면 엔교지의 중심에 해당하는 3개의 웅장한 건축물을 만나게 된다. 법문이 강연되던 대웅전인 다이코도(大講堂), 신체 단련과 식사를 위한 죠교도(常行堂)와 지키도 (食堂) 등이다. 모두 15세기 중반에 건축됐다. 에도시대를 풍미한 검객인 미야모토 무사시(宮本武藏)의 일대기를 그린 NHK 대하드라마 '무사시(武藏)'가 이곳에서 촬영됐다.

지키도 1층 대청마루에선 세필에 먹물을 찍어 법문의 일부를 따라 적어보는 체험도 할 수 있다. www.shosha.or.jp

엔교지 입장료는 300엔이다. 쇼샤잔 아래에서 정상부까지 로프웨이가 운행된다. 15분마다 출발하며 약 4분 소요된다. 요금은 왕복 900엔, 편도 500엔이다. 079-266-2006

쇼샤노사토 미술공예관 종이 인형에 새긴 마음

대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쇼샤노사토(書寫の里) 미술공예관은 쇼샤잔 산자락 아래 위치한다. 산속

에 우주선이 내려앉은 듯한 모습의 원형건물이 인상적이다. 히메지 시 지역에서 전해오는 전통공 예품을 직접 만들어볼 수 있다.

일본은 가면 문화가 발달한 나라다. 일본 최고의 무형문화유산으로 꼽히는 노(能) 역시 가면극이다. 쇼샤노사토 미술공예관에선 일본 전통 가면의 하나인 하리코(張り子)를 제작해볼 수 있다. 하리코는 일정한 모양의 틀에 종이를 여러 겹 붙여 말린 후 빼내 색칠하는 공예이다. 대개 사람이나개, 고양이의 얼굴 형상을 하고 있다. 하리코 제작은 작은 접시에 원색의 물감을 따르고 붓으로 하나하나 칠하는 방식이다. 백지의 종이 가면에 마음 내키는 대로 색칠할 수 있다.

쇼샤노사토 미술공예관에선 히메지 전통 공예품도 감상할 수 있다. 찻물을 끓일 때 사용하는 쇠집 게로 만든 풍경이 대표적이다. 대문이나 처마 아래 걸어두면 바람이 불 때마다 더 없이 맑은 음색을 들려준다. 특히 100년 전통을 자랑하는 히메지 코마(팽이), 흙으로 빚은 인형 등은 유년 시절의향수를 불러일으킨다.

쇼샤노사토 미술공예관 입장료는 300엔(중학생 이하 50엔)이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관한다. 입장은 오후 4시 30분까지 가능하다. 월요일, 12월 25일부터 이듬해 1월 5일까지는 휴관한다. 히메지 역에서 차량으로 약 25분 소요된다. 079-267-0301

Information

히메지 시는 효고 현 남쪽에 위치해 바다와 면하고 있다. 가까운 대도시는 오사카와 고베이다. 교통의 요지로서 일찍부터 번영을 누렸다. 일본 최대의 텐슈카쿠가 지어질 만큼 경제적으로 풍요로 웠다고 한다. 텐슈카쿠 내부에는 옛 히메지 성을 재현해 놓은 모형이 있다. 히메지 성을 중심으로 바둑판처럼 반듯한 대로가 나 있고, 촌락이 형성돼 있다. 지금도 히메지 성에서 히메지 역까지 왕복 6차선 오테마에(大手前) 도로가 뻗어 있다. 성 정문에서 역까지는 도보로 약 15분 소요된다. 역관광안내소에서 자전거를 대여해 이용하면 편리하다.

히메지 성 들여다보기

히메지 성은 폭이 넓은 해자로 둘러싸여 있다. 나무다리를 건너 성의 외곽 정문에 해당되는 오테몬 (大手門)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 오테몬부터 입장권 판매소까지는 넓은 잔디광장과 산책로가 조성돼 있어 새벽과 심야에 운동을 즐기는 이들이 많다.

- 1. 유벽(油壁) 대부분의 벽에 백색 회반죽이 발라진 히메지 성에서 유일한 흙벽이다. 텐슈카쿠 아래 호노몬(ほの門) 안쪽에 위치한다. 16세기 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히메지 성을 개축할 당시의 흔적으로 점토에 콩자갈을 혼합해 쌀을 갈아 만든 물로 굳혔다. 조총의 탄환이 튕겨나갈 정도로 단단하다.
- 2. 텐슈카쿠 대주(大柱) 지하 1층, 지상 6층 구조의 텐슈카쿠는 직경 1 m, 높이 24.6m에 달하는 두 개의 큰 기둥이 동쪽과 서쪽에 각각 세워져 중심축 역할을 한다. 동대주(東大柱)와 서대주(西大柱) 이다. 텐슈카쿠를 한 층씩 올라가다 보면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두 개의 아름드리 기둥을 볼 수 있다. 두 기둥은 지난 1930년대 히메지 성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새 것으로 일부 교체됐다.
- 3. 야경 즐기기 히메지 성은 해가 지면 성 전체에 야간 조명이 들어온다. 오테몬 주변 해자를 바라보면 수면에 비친 성벽의 모습이 아름답기 그지없다. 오테몬 안으로 들어가 산노마루에서 텐슈카쿠를 바라보면, 마치 한 마리의 학이 날개를 펴는 듯하다. 짙은 어둠을 배경으로 하얗게 회칠을 한텐슈카쿠가 위용을 드러낸다. 하늘에 달이라도 떠 있으면 그야말로 금상첨화다. 야간 조명은 오후 9시가 넘어서면 주변부에서부터 차츰 소등된다. 자정 무렵이면 텐슈카쿠의 정상부에만 은은한 조명이 남는다.
- **4. 관람료 및 관람 시간** 히메지 성 관람료는 600엔(5세 이상~15세 미만 200엔)이다. 히메지 성과 코코엔을 모두 둘러볼 수 있는 20% 할인 티켓은 720엔(5세 이상~15세 미만 280엔)이다.

히메지 성의 건물 내부는 화재 예방을 위해 조명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 오직 자연광으로 내부를 밝히기 때문에 해가 짧은 겨울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입장객을 받는다. 텐슈카쿠와 니시노마루에 이미 입장한 관람객은 오후 4시 30분까지 밖으로 나가야 한다. 4시가 넘어서면 두 명의 청원경찰이 텐슈카쿠 꼭대기부터 한 층씩 계단을 내려오면서 안전점검을 한다. 관람객이 모두 빠전 나가 건이 하이되면 참모은 다고 가층이모은 건이 자그다. 나이 기어지는 4의 하스티디 오위지

적 나긴 것의 확인되면 경군들 근고 즉 돌답군들 일의 검근다. 몫의 일의적는 #펄 약군구년 ◎펄까지는 입장 가능 시간이 오후 5시까지 연장된다. 12월 29, 30일은 휴성일(休城日)이다.

여/행/정/보

교통편 오사카 간사이국제공항을 이용하면 리무진 버스나 철도로 히메지 시까지 이동할 수 있다. 철도는 간사이 스루 패스(Kansai Thru Pass)를 구입해 이용하면 편리하다. 오사카, 교토, 고베, 나라, 히메지 등 간사이 지역의 버스와 전철 등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패스 가격은 2일권 3800엔, 3일권 5000엔이다. 오사카 역에서 히메지 역까지는 민영철도인 한신특급을 이용하는데 약 1시간 30분소요된다. 리무진 버스는 간사이공항과 히메지 역을 오가는데 약 2시간 10분소요된다. 간사이공항 기준으로 오전 8시 35분부터 오후 8시 55분까지, 히메지 역 기준으로 오전 5시 20분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각각 하루 10회 운행된다. 요금은 왕복 5000엔(편도 3000엔)이다. 히메지 역 출발 리무진 버스는 예약제로 운영된다. 079-223-1184

멘메(めんめ) 히메지 성 앞에서 27년째 영업하고 있는 수타 우동집이다. 한국 여행객들 사이에 탱탱한 면발과 진한 국물 맛으로 명성이 자자하다. 일본 전문 여행사의 히메지 시 안내 브로슈어를통해 처음 소개됐다. 이후 입소문을 타고 유명세를 얻었다. 멘메는 효고 현 남부지역의 사투리로 '모든 사람이 같이 나누어 먹는 것'을 의미한다.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문을 열며 수요일은 쉰다. 히메지 성 정문에서 도보로 3분 거리다.

유메노이(夢乃井) 히메지 시 북쪽 외곽에 위치한 시오타 온천지대의 료칸이다. 79개의 객실과 노천탕, 연회시설을 갖추고 있다. 카이세키 만찬도 즐길 수 있다. 시오타 온천지대는 약 300년 전에 발견된 곳으로 유메사키 강가에서 온천수가 용출된다. 효고 현 남부지역 최고의 온천으로 꼽힌다. 히메지 역 앞 버스터미널에서 51, 52번 버스가 운행된다. 약 30분 소요된다. 079-336-1000, www.yumenoi.com

효고현립역사박물관 히메지 성 뒷편에 위치한 박물관으로 효고 현과 히메지 성의 역사에 대해 배울 수 있다. '효고의 역사' 전시관에선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효고 현의 생활사를 엿볼 수 있다. '성과 성시' 전시관에서는 일본 전역의 성곽 자료를 살펴볼 수 있다. 상설 전시관 외에 옛 일본 여관(女官)과 귀족 여성들의 의상을 입어보는 체험 코너도 마련돼 있다. 입장료는 200엔(특별전 별도)이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입장할 수 있다. 월요일은 휴관한다. 일본성곽연구센터가 나란히 위치해 있다. 079-288-9011

히메지시립미술관 히메지 성 동쪽 성벽 아래 위치한 미술관이다. 메이지 시대 건축 양식에 따라 붉은 벽돌로 지어진 낭만적인 건물이다. 효고 현 출신 화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폴 델보, 르네 마그리트 등 벨기에 화가들의 작품도 소장하고 있다. 지방색이 돋보이는 기획전이 자주 열린다. 입 장료는 200엔(특별전 별도)이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입장이 가능하다. 월요일은 휴관한다. 079-222-2288

관광 셔틀버스 히메지 시는 주요 관광지를 순회하는 붉은색 관광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운행 구간은 히메지 역 북쪽 출구→히메지 성 오테몬 앞→히메지 시립미술관→효고현립역사박물관→코코엔→오테마에도리→히메지 역 북쪽 출구이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15~30분 간격으로 운행되며 1회 탑승 요금은 100엔(어린이 50엔)이다. 1일 승차권은 300엔(어린이 150엔)이며 히메지 성, 코코엔, 시립미술관 등의 상설전 입장료가 20% 할인된다. 승차권은 히메지 역 앞 버스터미널이나셔틀버스에 탑승하면서 구입할 수 있다.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토, 일요일에만 운행된다. 079-287-3658

관광안내소 히메지 시에는 두 곳의 관광안내소가 운영된다. 히메지 성 앞에 위치한 오테마에공원에서 가까운 히메지관광나비포트(079-287-3658), 히메지 역 안에 위치한 관광안내소(079-285-3792)이다. 두 곳 모두 한글판, 영문판 관광 안내 브로슈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관광용 자전거와 휠체어도 무상으로 대여해준다. 대여 신청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며, 반납은 오후 6시까지이다.





